

Meaning of Expertise in the light of Heidegger's Theory of Being

Jae Hoon Ryu (Hanyang University)
Yoon Mee Choi (Hanyang University)
Ryeong Hee Kim (Hanyang University)
Yeong Mahn You*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ncept of expertise in the light of Heidegger's theory of being. The expertise was defined in comparison with 'competency' and 'knowledge'. Competency is the set of key components what the expert in specific area should have, and expertise implies developmental continuum from novice and expert. Competency can't be separated from the person, and personalized knowledge indicates that the whole of knowledges or system of knowledges is embodied in the expert. Sticking to this idea, Heidegger's theory of being gives fundamental perspectives on expertise. Belonging togetherness in theory of being criticizes an error of human thinking and let people take central way, supporting with the three main concept of 'Sorge'-taking care of myself, 'Besorgen'-concerning with tools, and 'Fürsorge'-caring for others. In this study, the expertise in light of Heidegger's theory of being is established as 'ontology as the belonging together', 'epistemology as structure or system', 'methodology as the phenomenological/hermeneutical', and 'axiology as care(Sorge), concern(Besorgen), caring for(Fürsorge)'. Expertise in light of Heidegger's theory of being does not exist in fixed and fixed ontological characteristics, but it is constantly changing in order to reveal the possibility of oneself. In this respect, this study has the significant implication for alternative understanding of expertise theoretically as well as the competency education practically.

Key words: Heidegger, theory of being, being, presence, belonging together, expertise, competency, knowledge

* Corresponding author: Hanyang University, Haengdang 1-dong, Seongdong-gu, Seoul, Korea
E-mail: 010000@hanyang.ac.kr

하이데거 존재론에 비추어 본 전문성 의미 탐색

류 재 훈 (한양대학교)

최 윤 미 (한양대학교)

김 령 희 (한양대학교)

유 영 만* (한양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비추어 본 전문성의 의미를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성 개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문성 그 자체의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역량'과 '지식'의 비교를 통해 전문성을 규정하였다. '역량의 총체성'과 '체계 또는 구조로서의 지식'의 개념은 전문성의 의미에 관한 나름의 관점을 제시한다.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비추어 전문성의 의미를 탐색하는 본 연구의 필요성은 하이데거 존재론이 가진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올바른 인간으로 사는 본래적 삶이 무엇인지 밝힘으로써, 전문가가 지향해야 하는 전문성을 규명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데거 존재론에 비추어 본 전문성을 공속적 관계로서의 존재론, 체계 또는 구조로서의 인식론, 현상학적/해석학적으로서의 방법론, 염려, 배려, 심려의 가치론으로 정립하였다.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비추어 본 전문성은 고정되고 고착된 존재자적 특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드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이데거 존재론에 비추어 본 전문성은 실천적/이론적 의미를 가진다.

주요어: 하이데거, 존재론, 존재, 현존재, 공속적 관계, 전문성, 역량, 지식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E-mail: 010000@hanyang.ac.kr
논문투고 2017. 01. 10 / 심사일자 2017. 01. 17 / 심사완료 2017. 02. 16

I. 서론

흔히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면서 ‘그 사람은 전문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때 우리는 전문가적 존재로서 그 사람의 탁월한 측면들(지식, 기술, 태도, 동기 등)을 자세하게 열거할 수 있다. 이것은 전문가를 전문가이게끔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전문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전문성을 파악하는 것은 전문성 일부를 내보이는 하나의 방편으로써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파편으로 드러난 전문성의 부분들을 전부 합친다 해도 전문성의 실재(본질)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전문성 그 자체를 은폐한다고 볼 수 있다(Heidegger, 1998). 이와 같이 전문성을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모종의 능력으로 파악하고, 이를 갖춘 사람, 즉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단순히 환원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여전히 전문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윤정일 외, 2007).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성은 그 자체의 의미보다 일종의 수단이나 상품으로써 파악되고 있다(배을규, 동미정, 이호진, 2011; 오현석, 김정아, 2007). 역설적으로, 이것은 전문성 개발이 인적자원개발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배을규, 2009; Argyris & Schön, 1996; Chi, Glaser & Farr, 1988; Ericsson & Smith, 1991; Swanson & Holton, 2001)는 점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조직의 전략과 목표 달성이 강조되는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전문성 개발은 중요한 목표라기보다는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인식되며(송미영, 유명만, 2010; Bae, 2002), 전문성은 역량과 마찬가지로 상품화된 인간능력으로서 취급되고 있다(엄태동, 2016). 전문성에 역량의 개념이 일부 불박여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적 접근들은 역량을 기본단위로 전문성을 분절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문용경, 2013).

역량의 개념은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도구로 처음 개발되었으나(Spencer & Spencer, 1998), 최근에는 한 개인이 전문성을 가진 존재로서 확립되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다양한 특성으로 이해되면서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다(김광민, 2009). 역량은 전문성 개발을 위한 학습목표 설정과 교육내용 선정의 기준(proficiency level)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들은 역량을 개인적, 사회적으로 필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편적인 수단으로 파악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의 전문성 개발과 조직의 성과향상은 수단-목적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수단-목적의 관계에서는 오로지 목적 달성에만 관심이 있으며, 수단은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하다. 이때 수단과 목적의 관계는 불가분(不可分)의 관계라기보다는 우연적이고, 경험적인 관계이다(김광민, 2009; 엄태동, 2016).

개인의 전문성 개발이 조직의 성과향상에 중요한 수단이라고 해서,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전문성 개발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이외에 다른 수단(선발, 재배치 등)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다. 이와 같이 전문성 개발과 조직 성과향상의 관계를 단

순히 수단-목적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전문성의 정체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결국, 전문성의 속성과 성격이 무엇인지, 전문성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능력이며, 그간의 전문성 개발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들은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문제로 남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Heidegger 존재론에 비추어 전문성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성 개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Heidegger는 평생을 걸쳐 ‘존재(Sein, being)’의 의미를 탐색한 철학자이다. 그의 철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Heidegger 철학을 교육이론으로 해석한 선행 연구(서용석, 2013; 엄태동, 2016)를 통해 전문성 개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그것의 당위성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이나 전문성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도 않은 Heidegger 철학, 즉 그의 존재론에 비추어 전문성을 연구하는 그 의의와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 물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것은 Heidegger의 존재론이 올바른 인간의 모습, 훌륭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규명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서용석, 2013). Heidegger(1998)에 의하면, 인간, 책, 노래 등을 포함한 실제로 있는 대상(온갖 사물 및 모든 현상)을 존재자(das Seiende)라고 한다. 이 중에서 인간을 별도로 현존재(Dasein, presence)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인간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의 존재 이유를 따져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도구연관(목적연관)의 세계’라고 부르는데, 모든 존재자는 서로가 서로의 쓰임새로 연결, 즉 도구이면서 동시에 목적인 상호 의존관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인간이 도구연관의 세계에서 본래적인 현존재로 살아갈지 일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갈지는 존재자의 변화 양상에 따라 존재 물음을 던질 힘이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여기에서 인간을 전문가로 대체하면, 전문성이 발현되는 특정 분야에서 존재 물음을 던질 힘이 있느냐에 따라 ‘진짜’ 전문가로 살아갈지 ‘사이비’ 전문가로 살아갈지가 결정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답게 살고 싶다면, 삼라만상(森羅萬象)과 나의 관계에 대해 늘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Heidegger의 존재론은 ‘올바른 전문가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Heidegger의 존재론은 수단-목적의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맺음 방식을 제시한다. 앞서 전문성(역량, 지식)과 다른 무엇을 단순히 수단-목적의 관계로 보는 관점은 인간의 의지와 욕망에 따라 일체의 것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려는 도구적 합리성에 근거한다(엄태동, 2016). 이것은 전문성이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기 이전에 고유한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인간의 의지와 욕망에 의해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주객 이원론을 전제하고 있다(이기상, 2013). 반면, Heidegger(1998)는 이러한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적인 사유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경고하며, 주객이 일원화된 상태인 공속적 관계

(belonging together)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것은 주체와 객체의 구분과 대립이 없이 서로의 잠재 가능성을 찾아 마음을 활짝 열어젖힘을 의미한다. 즉, 전문성은 내(현존재)가 자신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기반으로 타인(동료 현존재)에 대한 심려와 존재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 씀으로 맺어져 있는 공속적 관계 속에서 각자 고유한 것으로 정립된다.

결국, Heidegger의 존재론에 비추어 본 전문성이란 일상적 인간에서 본래적 현존재로의 이행이며, 전문가란 깊이 있고 수준 높은 본래적 현존재를 의미한다. 이때 본래적 현존재로서 전문가는 자신이 접하게 된 존재의 진리를 다른 현존재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자신의 수준과 깊이를 더 하고, 소통할 수 없는 일상적 인간과 깨달음을 나누는 것은 교육과 공속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엄태동, 2016). 전문가는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로 도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신의 깨달음을 남에게 전해주어야만 진정한 전문가(본래적 현존재)로 거듭날 수 있고, 전문성도 더욱 전문성다운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것은 전문가의 삶 자체가 인간의 학습 본능을 추구하는 호모 에루디티오의 삶인 동시에 안드라고지의 삶이라는 것을 의미한다(한준상, 1999). 특히, 안드라고지가 성인교육의 전문직화의 과정에서 대두되었다는 점(Gent, 1996)은 전문성(또는 전문성 개발)이 성인교육/평생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권대봉, 2002; 권두승, 조아미, 2016; 기영화, 2002). 본 연구는 Heidegger의 존재론을 기반으로 전문성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는 Heidegger의 철학적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전문성은 도구연관의 세계에서 ‘나 자신과 동료, 그리고 도구’의 세 요소가 공속적 관계로 맺어질 때, 최고의 경지를 꿈꾸는 실존적 삶으로서 드러난다.

이하 II절에서는 Heidegger 존재론의 주요 개념에 비추어 전문성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와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이어지는 III절에서는 기존의 전문성 연구를 통해 전문성이 무엇인지, 어떠한 종류의 능력으로 볼 것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역량의 개념과 그 한계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IV절에서는 Heidegger에 비추어 본 전문성의 개념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 절에서는 Heidegger의 존재론과 전문성의 관련에 주목하면서, 전문성의 실체, 즉 본래적 의미의 전문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탐색한다. 또한, Heidegger에 비추어 본 전문성 개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 개발 모형이란 전문성의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규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논의하는 개념적 모형의 성격을 띤다. 결론에서는 Heidegger에 비추어 본 전문성의 의미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Heidegger 존재론의 주요 개념 및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전문성은 어떠한 종류의 능력인가? 셋째, Heidegger 존재론에 비추어 볼 때, 전문성은 어떻게 개념화될 수 있는가? 넷째, Heidegger 존재론에 비추어 볼 때, 전문성 개발 모형은 어떠한가?

II. 하이데거 존재론의 주요 개념 및 의미

Heidegger 철학은 현상학, 실존철학, 생철학(이를 기반으로 한 해석학까지)을 아우르는 독특한 철학이라 할 수 있다(이기상, 2013). Heidegger 철학에 대한 연구는 한 평생의 연구도 부족한 난해한 작업으로 본 연구에서 그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다룰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존재, 현존재 등과 같은 핵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Heidegger 철학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Heidegger에 비추어 본 전문성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대 지성계를 뒤흔든 기념비적인 저서인 「존재와 시간」을 중심으로 Heidegger 철학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Heidegger 철학의 주요 개념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동시에, 전문성과 연계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1. 존재(Sein)의 의미와 존재 물음의 필요성

Heidegger는 평생을 걸쳐 ‘존재(Sein, being)’의 의미를 탐색한 철학자이다. 이것은 그를 세계적인 철학자의 반열로 이끈 「존재와 시간」이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의 설명”(Heidegger, 1998: 15)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존재는 난해한 철학적 개념이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사물과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시작점이다. Heidegger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이 존재 물음-존재가 무엇인지 따져 물어보는 것을 망각하고, 존재와 존재자를 구별하지 않고 뒤섞어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혼돈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면서(이기상, 2013), 그 원인으로 존재에 대한 세 가지 선입견을 언급한다. “존재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며”, “존재라는 개념은 정의될 수 없고”, “존재는 자명한 개념이다”(Heidegger, 1998: 16-17). 즉, ‘존재(있음, ~이다)’라는 개념은 일상생활이나 학문적 탐구에서 항상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모두 이해하고 있으며, 새삼스럽게 개념 정의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Heidegger는 이러한 선입견을 통해 오히려 존재 물음을 던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Heidegger에 의하면, 서양의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존재 이해는 존재자의 존재자성(存在者性, Seiendheit)에만 주목함으로써 존재를 망각하는 사유라는 것이다(엄태동, 2016). 이것은 존재를 존재자들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속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네모난 책상, 둥근 책상, 파란 책상, 교실 책상 등 수많은 책상을 책상이게끔 하는 공통적인 특징으로서의 책상존재(책상임)가 있기에, 우리는 그 모든 책상들을 다양한 외양과 재질에도 불구하고 책상이라고 부른다. 책상존재는 최고의 유(類) 개념이므로 정의할 수 없지만, 보편적 개념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Heidegger(1998)는 존재가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말은 불명확한 주장이며, 존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개념이라는 평균적인 이해 가능성으로 파악하는 것도 결코 올바른 이해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존재를

정의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따져 물을 필요가 없는 자명한 것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반대로 존재가 정의 내릴 수 없고, 자명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실하게 물음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존재와 존재자는 존재 양식이 전혀 다르다. “존재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며, “존재는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Heidegger, 1998: 20)이다. 존재자는 인간, 책, 노래, 살수대첩, 2002년 월드컵 등을 포함한 특정한 형태, 색상, 속성 및 성질 등을 지닌 구체적인 개별자로 실제로 있는 모든 대상과 이것이 관계를 맺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반면, 존재는 어떤 존재자가 다른 존재자와 구분되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에게 어떤 책이 한권 있다고 한다면, 이 책은 구체적인 개별자로서 실제로 내 눈앞에 있다. 이것이 바로 책이라는 존재자이다. 이 책은 동료들과 함께 공부한 나의 경험이 불박여 있고,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밑줄이 그어져 있으며, 손때나 커피 자국 등이 묻어있는 나만의 책이다. 만약, 이 책이 똑같은 제품의 다른 새 책으로 바뀐다고 해도 구체적인 개별자라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이 책은 나에게 고유함을 가진 책이 아니게 된다. 이렇게 나에게 이 책을 고유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존재’이다. 존재는 보편성이라기보다 각자성이다.

존재는 존재자를 어떠한 존재자로 이해시켜 주는 것이다. 존재는 우리가 그 존재자를 친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드러내 준다. 존재는 구체적인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자처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 존재는 존재자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면서도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다. 이러한 존재와 존재자 사이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이점이 바로 존재론적 차이(ontological difference)이다(엄태동, 2016). 이것은 존재와 존재자 사이에 놓여 있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결국, Heidegger가 전통적인 형이상학을 ‘존재 망각의 역사’라고 평한 것은 존재를 존재자처럼 다루는 방식이 결국 존재 자체를 은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박승익, 2007). 전통적인 형이상학과 같이 존재자를 다루는 방식으로는 존재를 이해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과학적, 논리적 방법으로는 전문성을 파악할 수 없다. 전문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다가가 그 의미를 묻는 수밖에 없다.

2. 현존재(Dasein)의 세계성과 시간성

「존재와 시간」에 등장하는 유명한 명제 - “현존재(現存在, Dasein)의 ‘본질’은 그것의 실존에 놓여있다”(Heidegger, 1998: 67)-는 인간의 ‘있음’의 독특함을 보라는 메시지이다(이기상, 2013). 즉, 인간(현존재)은 지금 현재의 자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앞으로 존재 가능성대로 존재하려는 본질을 지닌다. 자신의 존재 가능성과 관계를 맺고 그 가능성대로 존재하려는 것이 실존인데, 이 실존이 곧 인간(현존재)의 고유한 본질이라는 것이다(엄태동,

2016). 이처럼 Heidegger에게 인간의 본질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그것은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알아내는 것보다 다르지 않다(서용석, 2013).

Heidegger는 인간의 있음이란 거기-있음이고 그 ‘거기’라는 것이 바로 ‘세계’라고 말한다. 따라서 인간의 ‘거기-있음’이란 곧 ‘세계-내-존재(In-der-Welt-sein)’이다(이기상, 2013). 현존재는 Descartes의 주장처럼 고립되어 생각하는 코기토적 자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세계-내-존재’이다. Heidegger가 말하는 세계는 주체인 인간이 자기 앞에 대면하고 있는 객체로서의 세계나 자연과학적 시선이 향하고 있는 물리적 대상 세계 같은 것이 아니라, 현존재가 현존재로서 살고 있는 삶의 장, 즉 생활세계를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가장 친근한 주위세계를 가리킨다(엄태동, 2016). 인간과 세계는 밀접함되어 있으며, 인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인간과 더불어 하나의 세계가 있다(이기상, 2013).

인간이 세계 안에서 만나게 되는 존재자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기반이 세계이다. 내가 몸담고 있는 세계가 바로, 내가 세계 안에서 만나는 존재자들을 각기 어떠한 존재자들로 드러내 주는 ‘존재’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가 바로 “도구전체성”(Heidegger, 1998: 118)이다. 이것은 ‘~ 때문에’ 존재하는 인간을 정점으로 수많은 존재자들이 ‘~을 위하여’ 서로 연관을 맺으면서 형성하는 끝이 없는 그물망을 의미하며, 세계-내-존재로서 현존재를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한다(엄태동, 2016). 현존재인 내가 최종점에 위치하고 있는 나의 세계(나의 실존범주)를 가정하면, 이 세계에는 나와 관련을 맺고 있는 노트북, 옷, 동료 현존재 등 수많은 존재자가 ‘나를 위하여’라는 형태로 서로 지시하며 연관을 형성하고 있다.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나의 세계에서 나와 관계하는 모든 존재자는 이러한 도구전체성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갖는다.

이러한 도구전체성의 세계 안에서 현존재가 만나게 되는 존재자들은 세 가지의 존재양식을 갖는다(Heidegger, 1998, p.126). 첫 번째는 손안의 존재자(das Zuhandene)이다. 이것은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 가능성에 따라 자유롭게 다루며 사용할 수 있는 도구적 존재 양식을 갖는다. 두 번째는 눈앞의 존재자(das Vorhandene)이다. 이것은 손안의 존재자가 더 이상 나와 하나 되지 못하고, 나와 분리되어 내 앞에 대상으로 세워져 있는, 도구적 존재 양식이 없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앞서 언급한 세계-내-존재, 즉 다른 인간을 의미한다. 그 앞의 두 개념은 “현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의 존재자”(Heidegger, 1998: 126), 즉 인간을 제외한 모든 사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내 방의 문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잘 몰랐는데, 갑자기 손잡이가 고장 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때, 손잡이는 더 이상 손안의 존재자가 아니라 눈앞의 존재자가 된다. 손안의 존재자일 때는 나의 의식에서 벗어나 일체의 관심도 없었던 손잡이가 눈앞의 존재자가 되면 가시적/명시적인 대상이 되어 드러난다. 이것은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현존재가 몸담고 있는 세계를 전부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엄태동, 2016).

Heidegger는 존재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존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인간을 현존

재라고 명명하였다(조형국, 2009). 이것은 인간이 존재 이해를 갖는 유일한 존재자라는 것을 의미한다(이기상, 2013). Heidegger에 따르면, 존재 이해를 갖는다는 것은 ‘존재할 수 있음’으로, 즉 존재 가능성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엄태동, 2016).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존재의 존재 가능성이 당장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삶의 이력과 장차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미래적인 차원과의 연관 속에서 설정된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현존재의 존재 이해는 복잡한 시간성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엄태동, 2016).

이러한 현존재의 있음은 시간성의 차원에서 현사실성(과거), 실존(미래), 빠져 있음(현재)으로 파악할 수 있다(이기상, 2013). 현사실성(Faktizität)은 세계 안에 이미 존재함이라는 뜻이다.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세계의 한가운데에 내던져진 존재(피투성)이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원해서도 아니며, 만나는 대상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어떠한 선택의 여지없이 내던져진 이 세계에서 삶의 논리와 문법을 배우며, 세계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현사실성이다. 현사실은 단순히 끝나버린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맡음으로써 바꾸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내던져져 있음’을 ‘떠맡음’으로써, 그 ‘내던져져 있음’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이기상, 2013).

실존은 죽음을 향한 존재인 인간이 자신의 죽음으로 미리 앞서 달려가 미래로 자신의 가능성을 기획투사(Entwurf)하여 그 가능성 아래에서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기획하여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이기상, 2013). 이때 기획이라는 것은 미래적 차원이며, 투사는 앞으로 던지는 것이다. 기획투사는 미래적 차원의 무언가를 만들어 그 가능성을 앞으로 던지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현존재의 있음은 현존재가 자신이 이해한 존재 가능성을 앞으로 던져 자신이 몸담게 되는 세계와 그 세계 안에서 만나게 되는 존재자들을 드러내는 가운데 자신의 존재 가능성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소광희, 2003).

Heidegger는 이러한 현존재의 존재 양식을 “본래성과 비본래성”(Heidegger, 1998: 68)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현존재의 본래성(본래적 현존재)’은 실제적 삶에서 현존재가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본래적인 존재 가능성’을 증언하면서,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존재자(도구, 동료 현존재)까지도 각기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적 현존재’로서의 나는 자기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염려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능성이 무엇인지 자각하고, 그러한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애를 쓰며 살아간다. 반면, ‘현존재의 비본래성(비본래적 현존재)’은 진정한 의미의 선택(실존적 결단) 없이, 타인(das Man)들에 의해서 주어진 가능성들을 자신의 가능성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비본래적 현존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위한 선택을 타인에게 넘겨주며, 사람들이 선택해 놓은 가능성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이기상, 2013).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제대로 염려하지 않고,

동료 현존재에 대한 심려로부터도 등을 돌린 채 평균성, 균등화, 공공성을 특성으로 하는 세론에 의해 모든 세계 해석과 자기 해석이 규정된다(엄태동, 2016).

3. 현존재(Dasein)의 마음 씀

앞서 본래적 현존재는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존재자(도구, 동료 현존재)까지도 각기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현존재는 다른 존재자들과 고유한 관계 맺음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맺음을 공속적 관계(belonging together)라고 한다. Heidegger(2012: 16)에 의하면, “공속성(公屬, Zusammengehörigkeit)”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존재들이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있다는 뜻”(엄태동, 2016: 18)이다. 즉, 현존재는 자신이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존재자와 서로 다르지만, 이들은 각자가 독자적으로 그 실체나 고유함이 정립된다기보다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도 정립하고 동시에 상대의 정립에도 기여한다.

공속적 관계란 “서로 구분되는 것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상생상성(相生相成)하는 가운데 각기 고유한 것들로 정립되는”(엄태동, 2016: 18), “존재와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요청하는”(서용석, 2013: 62),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Heidegger, 2012: 19) 관계 맺음을 의미한다. 공속적 관계는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기반으로 동료 현존재에 대한 ‘심려’와 존재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 씀의 관계 맺음을 뜻한다. 이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인간다움이며, 인간만의 고유함이라고 할 수 있다. 염려, 배려, 심려의 마음 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염려(Sorge, care)는 자신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관심 또는 마음 씀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현재 모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존재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기 마련이다.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걱정하면서 자신의 미래적인 가능성을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한 바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염려이다(엄태동, 2016). 염려는 자신의 양심(gewissens)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자 실존적 결단을 내리는 마음이다. 현존재가 비본래성에서 벗어나 본래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데, 이것은 자신(현존재)에 대한 불안(angst)으로부터 시작된다. 불안은 비본래성을 자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눈을 돌리게끔 만드는 것이며, 이것은 현존재가 그 자신의 가장 고유한 세계-내-존재로 되돌리게 만드는 동력이다. 불안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염려하면서 자신이 존재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그의 존재 가능성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말 없는 소리인 양심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본래적 현존재가 되기로 결단한다(엄태동, 2016).

둘째, 배려(Besorgen, concern)는 내 삶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에 대한 관심이다. 이것은

나(현존재)의 생존기반으로 작용하는 도구 그 자체에 대한 인간적 관심을 의미한다. 배려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손안의 존재자로서의 도구이다. ‘손안의 존재자’란 도구가 그 안에서 그것 자체에서부터 스스로를 내보이고 있는 도구의 존재 방식을 의미한다(Heidegger, 1998: 121-122). 도구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도구들과의 연관 속에서 존재한다. 다른 도구들과 형성하는 도구전체성 속에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의 도구가 어떠한 도구로 드러난다(엄태동, 2016).

셋째, 심려(Fürsorge, caring for)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은 뜻을 같이하는 동료, 즉 나 이외의 다른 현존재, 동료 현존재를 말한다. 심려는 배려와 같이 현존재의 염려가 동료 현존재를 만나면서 발견되는 것이지만, 도구적 존재자에 대한 마음 씀인 배려와 같은 것은 아니다. 특히나, 동료 현존재와 관련된 배려는 그들에게 베푸는 시혜 같은 것이 아니다. 동료 현존재를 각기 고유한 존재로서 존중하고, 그의 염려를 촉진하기보다 자기의 의지와 의욕에 맞도록 쓸 수 있는 수단이나 부품으로 보면서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다.

동료 현존재에 대한 심려는 두 가지 양상으로 표출된다(박찬국, 2014).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같은 고유한 현존재로 대하면서 그들 각자 자신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본래적 현존재가 되도록 이끄는 것, 즉 본래적 심려이다. 다른 하나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일상적 현존재가 자기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일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비본래적 현존재가 되도록 직간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퇴락한 형태인 비본래적 심려이다. 엄태동(2016: 85)은 “다른 사람의 존재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심려를 자세히 분석하여 이를 교육과 관련지어 사유하는 일은 존재와 공속하는 교육을 찾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하였다. 전문성을 ‘비본래성에서 본래성으로 이행’으로 본다면, 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현존재의 고유한 본질에 해당하며, 그가 전문가로서 존재하는 이상, 반드시 자신의 존재를 통해 수행되어야 하는 인간적인 존재 양식이다(엄태동, 2016).

III. 전문성의 개념 및 속성

전문성의 개념은 이론적으로 합의되지 못하고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배을규, 동미정, 이호진, 2011; 오현석, 김정아, 2007). 본 절에서는 전문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통해 전문성의 의미를 고찰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전문성의 공통적인 속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은 주로 ‘역량중심 교육’과 ‘지식중심 교육’의 두 가지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역량과 지식의 관계를 통해 전문성이 어떠한 종류의 능력으로 볼 것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1. 전문성의 공통적 속성

그동안 전문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전문성의 구성요소 및 특성을 규명하거나, 초보자가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발달과정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문용경, 2013; 배을규, 동미정, 이호진, 2011; 오현석, 2006). 이러한 연구들은 전문성의 구체적인 구성요소와 특성을 밝히고, 전문가와 초보자의 차이를 발달단계로 규명함으로써 전문성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전문성을 전문가가 보이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을 몇 가지 행동적, 실증적 용어를 통해 정의 내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실천 현장에서 발현되는 전문성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유영만 외, 2009). 그러나 전문가에게는 공통적으로 “특정 분야에서의 탁월하게 수행하는 능력”(오현석, 김정아, 2007; 윤정일 외, 2007; Ericsson & Lehmann, 1999; Chi & Koeske, 1983)이라는 속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때, ‘특정 분야’, ‘탁월함’, ‘능력’ 등과 같은 주요 키워드를 각각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전문성의 개념은 달라질 수 있다.

오늘날 전문가는 과거의 지식인이나 직업인의 모습보다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학습 활동으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실천가에 가깝다(Ericsson & Lehmann, 1996; Tagg, 2007). 이러한 맥락에서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성이라는 말은 그것이 어떤 분야든지 간에 전문가의 실천(practice)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전문성은 현장의 경험이나 실천과 분리되어 단순히 특정 분야에서 필요한 이론적 지식이나 기술로 이해하기보다는 현장에서 경험과 실천을 통해 획득되는 암묵적 지식과 개인이 속한 분야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안목과 능력으로써 이해되어야 한다(Bereiter & Scardamalia, 1993; Bourbonniere et al., 2009).

이것은 전문성이 여러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더 잘 조합하여 체계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이론적 타당성’과 이것을 현장에서 표현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적 탁월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상황에 적절한 올바른 행위인지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윤리적 판단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전문가의 실천을 전제로 할 때, 전문성은 전문성이 발휘되는 다양한 상황맥락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탁월함’은 전문가와 초보자를 구분하는 전문성의 중요한 속성이지만, 탁월함을 단순히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보여주는 우월한 능력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전문성을 ‘전문성 발달의 최종 단계’라는 종결적인 의미로 파악함으로써 전문성이 역동적인 발달 과정을 지니는 개념임을 간과하였다(문용경, 2013; 배을규, 동미정, 이호진, 2011). 즉, 전문성은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상태’의 고정된 획일적인 모습(being)이 아니라 ‘최고 수준에 도달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전문가의 되어가는 양상(becoming)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Heidegger, 1998). 이러한 맥락에서 한 사람의 성장 과정을 의미하는 전문성의 발달단계(Bloom, 1985; Dreyfus & Dreyfus, 1986; Feldman, 1955)가 유의미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전문성의 발달단계는 학습자가 내재화할 수 있는 전문성 수준(proficiency level)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학습자의 수준을 현재(as is)에서 어느 수준(to be)까지 끌어올릴 것인가라는 학습목표로 활용될 수 있다.

전문성을 어떠한 종류의 ‘능력’으로 볼 것인가 규정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전문성이 교육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배을규, 2009; 오현석, 2006; Engerstrom, 2001; Herling, 2000). 즉,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적 접근들이 전문성을 모종의 ‘능력’으로 가정한다는 사실은 전문성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적 접근들이 ‘지식중심 교육’과 그 대안으로 등장한 ‘역량기반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영준, 2009; 김광민, 2009; 신춘호, 2010)는 점에 주목한다면, 전문성은 모종의 ‘지식’ 또는 ‘역량’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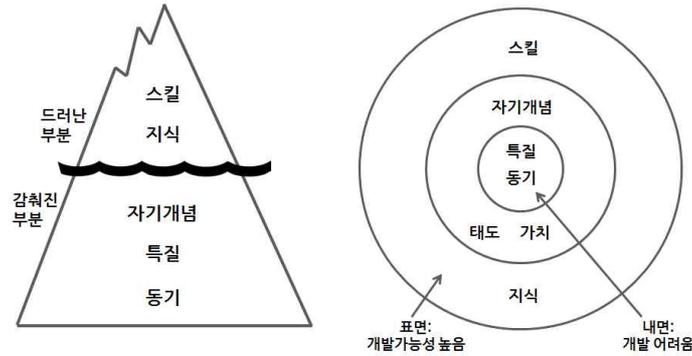
직업이나 직무에 초점을 두기보다 복잡한 개인 삶의 실제적 측면에서 필요와 관련하여 역량을 바라보게 만든 DeC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e) 프로젝트의 영향으로(소경희, 2007), 최근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적 접근들은 주로 역량을 기본단위로 전문성을 파악하고 있다(문용경, 2013). 하지만, 과연 역량이 지식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인가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김광민, 2009). 다음 항에서는 대표적인 역량 담론인 Spencer와 Spencer(1998)의 정의를 중심으로 역량의 구성요소와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역량과 지식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것은 전문성을 어떠한 종류의 능력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2. 전문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Spencer와 Spencer(1998)는 역량을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규정하고, 빙산모델(iceberg model)을 통해 역량의 구성요인을 동기(motives), 특질(traits), 자아개념(self-concept), 지식(knowledge), 기술(skill)로 구분하고, 역량의 구인을 발현되는 양상에 따라 표층과 심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1]의 좌측의 빙산모델에서 지식과 기술은 표면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부분이며, 동기, 특질, 자아개념은 감추어져 있어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한다.

우측의 동심원모델을 통해 동기, 특질, 자아개념보다 지식과 기술이 개발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Spencer와 Spencer의 정의는 역량의 드러난 부분(표층)을 감춰진 부분(심층)과 관련시켜 이해함으로써 인지적 측면만 중시하던 인간 능력에 대한 논의의 한계를 벗어나, 비인지적(정의적) 측면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능력으로서 역량을 보았다는 점에서 인간 능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소경희, 2007).

Spencer와 Spencer의 지식, 기술, 태도, 자아개념, 동기 등이 역량의 구성요소라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지식과 기술이 표층이고, 태도, 자아개념, 동기 등은 심층이라고 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것은 지식과 기술은 명시적 형태로밖에 존재할 수 없고, 태도,



(그림 1) Spencer와 Spencer(1998)의 역량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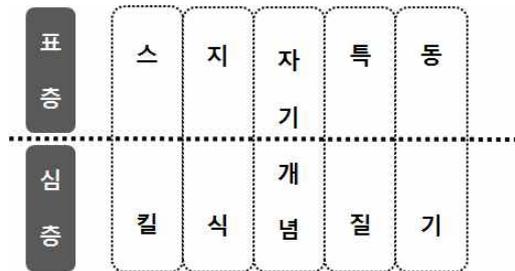
자아개념과 동기 등은 암묵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식과 기술도 명시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측면이 존재하며, 태도, 동기, 자아개념도 암묵적인 측면과 명시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Ryle(1994)의 주장과 같이 지식(사실을 아는 것, know-that)은 명제적 지식으로, 기술(방법을 아는 것, know-how)은 방법적 지식으로 상응된다고 한다면,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은 각각 심층과 표층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영준, 2009).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명제적 지식인지, 방법적 지식인지 관계없이)의 저변에는 암묵지(tacit knowledge)의 차원이 있다는 Polanyi(2001, 2015)의 주장과 모든 지식에는 규칙의 형태로 명문화할 수 있는 기법적 지식(technical knowledge)과 오직 사용되는 과정을 통해 그 존재가 드러나는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Oakeshott(1962)의 주장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태도, 동기, 자아개념은 “태도가 좋다/좋지 않다”, “동기가 순수하다/불순하다”, “자존감이 강하다/약하다” 등과 같이 특정한 방식으로 발현된다는 점에서, 태도, 동기, 자아개념에서도 심층뿐만 아니라 표층이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Polanyi, 2015, p.31)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인간의 행위 중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암묵적 측면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개념을 Spencer와 Spencer의 빙산모델에 적용하면,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빙산모델에서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인 지식, 기술, 태도, 동기, 자아개념이 각각 표층과 심층으로 구분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의미에서 일부는 땅에 깊이 불박여 있고, 일부는 지상으로 드러난 울타리 모형(fence model)으로 형상화하였다.

울타리 모형은 Spencer와 Spencer의 빙산모델에서 정의한 역량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빙산모델에서 제시한 명시적 측면과 암묵적 측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대안적 모형으로써 의미가 있다. 울타리 모형에서는 지식, 기술, 자기개념, 특질, 동기 등의 모든 역량은 표층과 심층으로 나뉜다. 점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역량이 발휘

되어 단순히 밖으로 보이는 명시적 측면이며, 아래쪽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인 암묵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Polanyi(2001: 195)의 “모든 지식은 두 종류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데, 그 하나는 암묵적인 지식이거나 다른 하나는 암묵적인 지식에 뿌리를 박고 있는 것(명시적 측면)이다”라는 주장을 적용한 것이다.



(그림 2) 울타리 모형의 역량구조

울타리 모형은 지식과 역량, 역량과 지식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지식을 단순히 빙산모델에서 제시한 역량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이해하면, 역량은 지식보다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기술, 태도, 동기, 자아개념 등도 함께 필요하다면, 당연히 지식은 역량의 부분을 차지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이것은 과학적, 통계적 지식 등과 같은 고정된 지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울타리 모형에서의 역량이 Polanyi(2001, 2015)가 말하는 인격적 지식(personal knowledge)의 개념-지식의 명시적 측면과 암묵적 측면이 모두 우리의 몸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지식은 지식의 주체인 개인 내에 존재한다.과 상응한다면, 지식은 역량의 한 가지 구성요소로 취급될 수 있는 개념이라기보다 역량과 같거나 더 큰 수준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지식은 인격적으로 그 사람에게 내재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이해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상황마다 다양하게 이해된다.

울타리 모형의 역량구조에서 심층의 작동 방식은 Polanyi의 암묵지 구조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olanyi(2001, 2015)의 암묵지 구조와 이것의 발현 방식에 의하면, 암묵지는 보조식(subsidiary awareness)과 초점식(focal awareness)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현된다고 볼 수 있다. 보조식은 특정 행위를 수행할 때, 동원되는 개인이 그동안 내면화한 지식의 총체이며, 초점식은 특정 행위를 수행할 때, 의식적으로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포인트를 말한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울타리 모형의 표층은 개인의 의식에 포착되지 않는 미지의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Polanyi의 인격적 지식은 울타리 모형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 총체적 능력으로서 역량을 말한다. 이때 역량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능력)’을 의미한다. 즉,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아는 기술, 학문)’와 ‘행할 수 있다(행하는 기술, 실무)’로 구분할 때

그 속에 담겨 있는 암묵적 특성은 인격적 지식과 구조적 유사성이 있으며, Polanyi(2015)는 이것을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총체적인 능력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총체적 능력’으로,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개인의 모든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다. Polanyi는 이것을 인격적 지식이라는 말로 압축하여 말하고 있다. 즉, Polanyi의 인격적 지식은 사람 그 자체라고 보아야 하며, 이것은 역량의 총체성을 밝히는 중요한 개념인 동시에 체계로서의 지식, 구조로서의 지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장상호, 1994, 1997).

이러한 체계 또는 구조로서 지식의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체계 또는 구조로서의 지식은 맥락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을 일반화된 형식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맥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체계 또는 구조로서의 지식은 개인의 체험과 별도로 객관적으로 실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은 개인의 내면에 불박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식은 암묵적 형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형식적 표현을 통해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즉, 한 인격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은 그 체계적 특징으로 인하여, 한 인격체의 능력 전체라고 볼 수 있다(장상호, 1997).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성을 ‘특정 분야에서 탁월하게 기능-개인적 차원이라기보다 사회나 조직 등 전체에 대한 기여라는 의미에서-을 수행하는 능력’의 보유 여부라고 규정하면, 전문성은 특정 분야에서 축적된 체계 또는 구조로서의 지식을 통하여 해당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때 체계 또는 구조로서의 지식을 어떤 종류의 지식으로 구분할 것인가에 따라서 전문성에 대한 규정은 달라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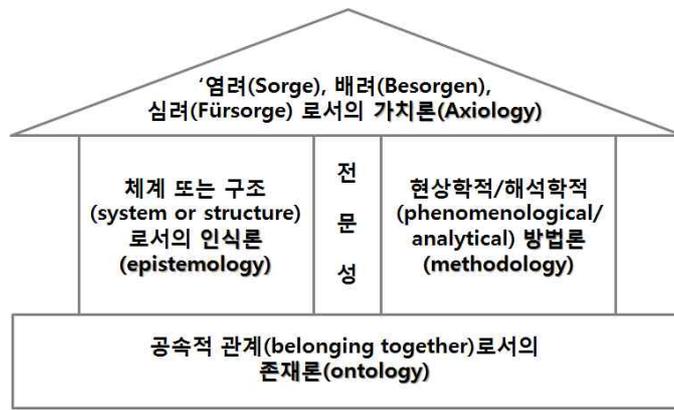
IV. 하이데거에 비추어 본 전문성

본 절에서는 Heidegger의 철학적 관점에 비추어 전문성을 재개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안적 역량모델을 개념적 수준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Heidegger의 철학적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존재론적, 인식론적, 방법론적, 가치론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전문성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것은 전문가 육성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써 Heidegger 철학을 재해석하는 동시에, 그의 철학을 교육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1. 하이데거에 비추어 본 전문성 정립

Heidegger는 「휴머니즘 서간」에서 그의 윤리학 집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존재론은 그 자체로 근원적인 윤리학이라고 대답했다(Heidegger, 2005: 169-173).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Heidegger의 존재론은 일반철학에서 구분하는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중에서 존재론만을 별도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인식론, 가치론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그의 존재론은 그 자체로 교육론이라고 할 수 있다(서용석, 2013). 이러한 점에서 ‘Heidegger에 비추어 본 전문성은 무엇인가?’는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 가치론 관점에 미루어 정립되어야 한다. 그의 철학적 관점에 비추어 본 전문성을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Heidegger에 비추어 본 전문성의 개념

존재론 측면에서 전문성은 ‘공속적 관계(belonging together)로서의 존재론’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생성을 본질로 하는 존재(being)의 개념을 존재자(be)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경계한다. 존재는 지속적으로 존재자로 잠시 드러나며, 다만 자신의 존재 가능성만을 드러낼 뿐이다. 즉, 전문성은 보편적/일반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존재자적 성질(특성)이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전문가의 존재 가능성을 탈은폐(un-concealment)함으로써 지속적인 생성 가능성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세계-내-존재로서 전문가는 자신이 속한 영역과 주어진 시간 속에서 다른 존재자와 공속하며, 그러한 공속적 관계 속에서 각기 고유한 자신의 전문성을 정립한다. 전문가는 자신의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그러한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는 도구, 사물, 동료 현존재로 채워져 있는 자신만의 세계를 향해 초월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전문가로 자기 자신을 탈바꿈해 나간다(엄태동, 2016). 이를 통해 그는 일상적인 삶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세인(비전문가, 또는 사이비 전문가)과는 다른 본래적 현존재로 거듭난다. 전문성, 즉 전문성의 있음은 과거의 삶이 농축되어 이어져 오고, 미래의 희망이 ‘지금 여기’로 앞당겨져 있는 긴장된 생생한 현재로 파악될 수밖에 없다(조형국, 2009).

일과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지금을 사는 전문가는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논리와 문법에 내맡긴 채, 그들에 의해 수단으로써의 삶을 영위하지 않는다. 매순간 자기 자신의

실존적 결단에 의해 자신의 삶과 운명을 만들고 개척해 가는 삶이 바로 Heidegger(2012: 397)가 말하는 본래적인 삶이며, 전문가의 본래적 모습이다. 이것은 “실천을 통해, 삶을 통해 드러내고 그것과 하나가 되고자 노력하는 자세”(조형국, 2009: 212)에서 나온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문가는 다른 존재자와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서 벗어나 상생상성의 공속적 관계를 맺는다. 공속적 관계로서의 존재론이 정립된 곳에서 전문성은 고정되고 고착된 역량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드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최고의 경지를 꿈꾸는 실존적 삶으로 존재한다.

인식론 측면에서 전문성은 ‘체계 또는 구조(system or structure)로서의 인식론’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편적 정보가 지식으로 간주된다면, 지식은 단순한 도구로서의 의미로 밖에 취급될 수 없다. 하지만, 지식을 체계 또는 구조로 간주하는 순간, 나, 타인, 도구와 관련된 지식의 연쇄(도구전체성) 속에서 지식을 정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지식과 진정한 관계를 통해 지식과 하나가 되며, 지식을 내면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지식은 Polanyi가 주장하는 인격적 지식이며, Heidegger가 말하는 “진리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현존재”(엄태동, 2016: 118)로 존재한다. 즉, 지식은 전문가 그 자체이다.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지식은 그와 불가분의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내면화하면, 새로운 체계 또는 구조가 형성되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현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반면, 체계 또는 구조로서의 인식론이 정립되지 않은 곳에서 지식은 수단이자 도구이다. 이때 지식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실현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잡지식’이다. 이러한 비전문가(세인)는 지식과 진정한 관계를 맺거나, 지식과 하나가 된다고, 그것을 내면화하지 않는다. 그것은 도구나 상품으로 사고 팔릴 뿐이다. 도구는 언제나 더 효과적인 새로운 도구로 갱신된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있으면, 새로운 도구로 대체하면 된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체계 또는 구조로서의 인식론이 정립되지 않은 곳에서는 자기 자신(현존재)도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남들보다 잘 팔리는 지식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쓸모 있는 존재자가 된다. 모든 것은 필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유행에 따라 새로운 지식을 계속 주입해야 한다(엄태동, 2016).

체계 또는 구조로서의 인식론이 정립된 전문성은 지속적인 자기체신의 과정이며, 사회적 이타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탁월함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의 ‘아레테(arete)’ 개념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문용경, 2013; 유명만 외, 2013; 홍윤경, 2009; Aristotle, 2013). 이때 전문성(또는 지식)은 여러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잘 조합하여 체계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이론적 타당성’, 이론적 지식을 현장에서 표현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적 탁월성’, 그리고 구체적 실천 상황에서 적절하고 올바른 행위인지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윤리적 판단력’을 포함한다.

셋째, 방법론 측면에서 전문성은 ‘현상학적/해석학적(phenomenological/analytical) 방법론’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Heidegger의 탐구방법은 후설의 현상학, 즉 현상학적 방법이

다. 이것은 환원-해체-구성의 세 단계로 나타난다(이기상, 2013). 첫 단계는 현상학적 환원(분석, 기술)이다. 둘째 단계는 현상학적 해체(Destruktion)이다. 셋째 단계는 현상학적 구성(Konstruktion)이다. Heidegger의 현상학적 방법은 해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존재론적으로 재구성한다. 그러나 Heidegger가 말하는 현상이란 단순히 존재자들이 내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암묵적 현상을 지칭하는바, 스승인 후설의 현상학을 따르고 있지만, 현상학적 또는 현상의 해석적 관점이 존재의 속삭임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방법론적 관점은 이와 관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존재의 암묵적 현상으로서 전문성은 전문가가 체득하거나, 내면화된 것으로, 이것은 종교적 감화나 개종과 마찬가지로 현존재의 변화가 수반된 것(다양한 변화양상 중 한 모습)이다.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성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것의 진리성을 확신하고 보편적 타당성을 주장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열정과 헌신이 자연스럽게 수반된다. 전문성은 전문가의 인식의 역사이자 믿음의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인격적 판단이나 선택은 단순한 주관성의 산물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는 보편적 타당성을 정립하려고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전문가의 실존적 결단이자, 이를 증명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설득의 열정이다(문용경, 2013; 장상호, 1994; Polanyi, 2001).

존재자를 어떠한 것으로 드러내 주는 존재는 존재자를 드러내 놓고 자신은 숨어버리기 때문에(엄태동, 2016), 존재의 암묵적 현상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계산해 낼 수도 없으며, 수학적 명제로 포착하고 통계적 방법으로 규범화시킬 수도 없다(조형국, 2009). 이것은 특정한 상황에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래적인 전문성을 탐색/개발하기 위한 현상학적/해석학적 방법으로 ‘경험 또는 행함을 통한 탐구/교육’을 제안한다. 경험 또는 행함에 의하여 전문성에 대한 탐구나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것은 연구자 또는 학습자가 만나는 모든 종류의 경험이나 행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험이나 행함이 어떠한 결과나 성과를 가져오는 것은 그것이 지적 작용에 의하여 해석될 때에 한해서이다. 지적 작용에 의하여 해석되지 않는 경험이나 행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맹목적인 경험이나 행함에 불과하다. 이러한 해석 능력은 책을 읽거나, 토론을 하거나, 신발을 만드는 것과 같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중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고, 토론하고, 제작하는가가 중요하다.

가치론 측면에서 전문성은 ‘염려(Sorge), 배려(Besorgen), 심려(Fürsorge)로서의 가치론’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도구, 사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염려하고, 배려와 심려하면서 살아간다. 염려, 배려, 심려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다시 말해, 숨겨진 나와의 대화, 드러난 사물과의 대화, 관계된 타인과의 대화이다. 전문가가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그는 자신과 연관을 맺고 있는 사물들과 도구들을 그것의 본질대로 드러내고, 주위의 사람들도 그들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도와야 한다. 염려, 배려, 심려는 존재와 인식, 현상을

바라보는 기본적 핵심가치이다. 핵심가치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개인이나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타로서 역할을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염려(Sorge)는 특정 분야에서 요구되는 배경 지식, 이론적 지식 등과 같은 지적 안목을 향상시키려는 자신에 대한 마음 씀이다. 이것은 지속적인 자기채신과정을 의미한다. 둘째, 배려(Besorgen)는 인간을 제외한 도구(이성/합리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모든 사물 및 동식물)에 대한 마음 씀이다. 이것은 자연과 사물에 대한 탐구로 기능적 정교성을 향상시키려는 제작적 마음이다. 예술가, 의사, 제작자 등과 같은 직업군에 더욱 요구되는 마음 씀이다. 셋째, 심려(Fürsorge)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동료 현존재)에 대한 마음 씀이다.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 판단력을 향상시키려는 심성 함양을 의미한다. 전문성이 필요한 어떤 실천 현장에서 이러한 핵심가치 중 하나라도 누락된다면, 그는 진짜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사회적 윤리성이 결여된 변호사, 수술 실력이 모자란 의사, 불에 대해 알지 못하는 소방관을 우리가 전문가라 부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2. Heidegger에 비추어 본 전문성 개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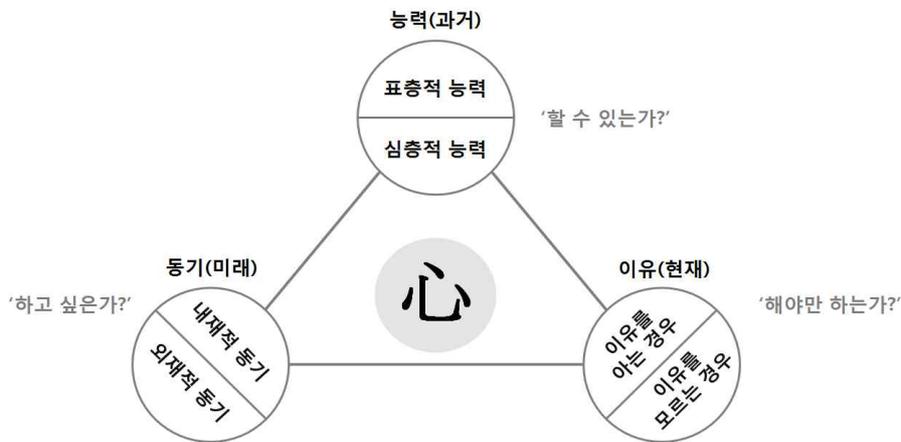
앞서 살펴본 것처럼 Heidegger에 비추어 본 전문성의 본질은 염려, 배려, 심려의 마음 씀에 기반한 공속적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세계-내-존재’로서의 전문가는 일을 잘하기 위해 도구, 주변 동료와 함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드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기획투사를 해야 한다. 이것은 공속적 관계 속에서 가시적인 결과물의 품질표준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성은 고정되고 고착된 존재자적 특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드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존재한다. 이처럼 “현존재의 존재의미가 철저히 시간 속에서 드러난다”(조형국, 2009: 217)는 점에서 전문성은 시간성의 차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Heidegger, 1998: 35). 전문가는 과거부터 축적해 온 자신의 능력(‘무엇을 할 수 있는가?’)을 토대로 미래에 의미 있는 결과를 창출(‘무엇을 하고 싶은가?’)하기 위해 현재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실존적 결단을 한다.

Heidegger에 비추어 본 전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고영준(2009)이 제시한 실천적 개념으로서의 역량-능력(competence), 동기(motive), 이유(reason)-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홍우(1998: 506-516)가 제시한 인간행위의 세 가지 양태-원인(cause)에 따른 설명(인과적 설명), 동기(motive)에 따른 설명(도구적 설명), 이유(reason)에 따른 설명(논리적 설명)-를 기반으로 Chomsky의 언어이론이 보여주는 새로운 양태(언어능력)의 설명을 ‘능력에 따른 설명(기능적 설명)’으로 재해석하였다. 또한, 역량의 총체성 개념을 통해 세 가지 자율적 개념(능력, 동기, 이유)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정신으로서의 역량을 제시하였다.

Heidegger에 비추어 본 전문성의 개념을 앞서 제시한 울타리 모형의 ‘심층/표층 역량구

조'와 고영준(2009)의 '정신으로서의 역량'과 통합하면 [그림 4]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전문성은 자신의 일에 대한 총체적 마음으로서의 '자유로운 정신'을 뜻한다. 이러한 전문성은 능력(과거), 동기(현재), 이유(미래)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것은 능력(과거), 동기(현재), 이유(미래)가 결합된 상태에서 발현되는 힘의 총량을 말한다. 이것은 전문성이 공속적 관계 속에서 염려, 배려, 심려의 마음으로 발현된다는 점에서 존재론적/가치론적 측면을, 전문가의 마음에 불박여 있다는 점에서 인식론적 측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전문성의 심층은 우리가 흔히 '장인정신', '군인정신', '선비정신' 등으로 부르는 그 정신을 의미하며(고영준, 2009), 전문성의 표층은 단순히 드러난 능력, 외재적 동기, 사회적 의미를 모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Polanyi의 암묵지 구조에 비추어 본다면, 표층은 전문가의 인식 밖에 존재하는 미지의 영역, Heidegger의 용어로 세계-내-존재의 외부에 있는 '눈앞의 존재자'로 확장하여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Heidegger에 비추어 본 전문성 개발 모형

첫째, 능력이란 과거에서부터 축적되어 온 것으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다. 능력은 표층적 능력과 심층적 능력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능력을 지식으로 가정하면, 지식은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명제적 지식(know-that)은 개념, 원리, 이론 등과 같은 관조적 이해를 의미한다. 명제적 지식을 아는 수준을 표층적 앎과 심층적 앎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표층적 앎은 명제를 단순히 읊조리는 수준을 지칭하며, 심층적 앎은 그 명제의 의미를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방법적 지식(know-how)은 가시적인 결과물을 산출하는 절차나 방법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표층과 심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표층적 앎은 요리법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아는 것이고, 심층적 앎은 요리법을 따라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맛을 구현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방법적 지식은 처방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산출하는 힘이다. 지

식은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이 결합된 상태로 이해되어야 하고, 능력은 심층적 능력과 표층적 능력으로 구분된다. 전문가에게는 두 가지 능력의 균형감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동기란 새로운 가치/서비스의 창출 등과 같은 미래에 존재 가능성을 의미하며, 무엇을 하고 싶은 열망이다. 동기도 표층과 심층의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표층은 외재적 동기로,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기보다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그 일을 하는 경우이다. 심층은 내재적 동기로, 일 그 자체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찾는 것, 즉 일 자체가 목적인 경우를 말한다. 전문가에게는 이 두 가지 동기의 균형이 중요하다. 셋째, 이유란 현재의 실존적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일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따져 묻는 힘이다. 이유도 표층과 심층의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표층은 그 일의 사회적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행하되, 사회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이다. 심층은 그 일의 사회적 의미를 아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전문가는 자신이 하는 일을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성찰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더욱 잘할 수 있다.

능력, 동기, 이유는 각각 승법(乘法)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각각의 수준에 따라 전문성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능력 측면에서, 단순히 어떤 목적 달성의 행위를 하도록 이끄는 힘(표층적 압)이 아니라, 그 목적 달성의 행위를 통하여 부지불식간에 행위자의 동기가 행위의 이유와 하나가 되도록 이끄는 힘(심층적 압)으로 작용된다(고영준, 2009). 동기 측면에서 내재적 동기가 얼마나 충만한지에 따라, 할 수 있는 능력의 크기와 해야 하는 이유의 크기가 비례하여 증가할 수 있다. 이유 측면에서는 사회적 의미를 따져 묻는 성찰의 깊이에 따라, 능력과 동기의 크기가 비례하여 증가할 수 있다.

IV. 결 론

지식기반사회와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로 성인교육, 평생교육, 기업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서도 전문성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권대봉, 2002; 김광민, 2009; 배을규, 2009).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올바른 전문성 육성을 위해,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는 Heidegger의 철학적 관점에 비추어 전문성의 개념을 규명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Heidegger의 철학은 Plato에서부터 시작된 서양 전통철학의 사유를 넘어서려는 시도이며, 전통철학이 망각한 채 드러내지 못했던 ‘존재’를 해명하려는 남다른 노력이다(엄태동, 2016). 그는 전통철학의 주객이원론을 거부함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를 확립하는 자신의 존재론을 정립하였다. 그의 철학은 지식의 상품화와 교육의 수단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대의 교육학에 지식과 교육이 그 자체의 고유함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Heidegger 존재론에 비추어 본 전문성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서, 먼저

Heidegger의 초기 저작을 중심으로 존재, 존재자, 현존재 등의 존재론의 주요 개념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전문성의 개념을 역량과 지식의 관계를 통해 규명하였다. 체계 또는 구조로서의 지식을 수용한 전문성은 고정적이고 획일화된 개념이라기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격적 총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Heidegger에 비추어 본 전문성을 철학적 관점-존재론적, 인식론적, 방법론적, 가치론적 측면에서 정립하였다. Heidegger에 비추어 본 전문성의 본질은 염려, 배려, 심려의 마음 씀에 기반 한 공속적 관계 속에서 가시적인 결과물의 품질표준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성은 고정되고 고착된 존재자적 특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드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존재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Heidegger 존재론에 비추어 본 전문성은 전문성 연구의 관계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전문성은 전문가 한 사람의 분투노력으로 축적되는 개체론적 역량이 아니라, 전문가의 실존적 노력과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제공하는 도구와 타자가 만들어가는 사회적 합작품으로 새롭게 재정립될 수 있다. 지금까지 전문가 교육은 전문가 한 사람의 역량 개발을 위한 탈맥락적 교육이나 다양한 교육적 개입수단을 독립적으로 처방하는 교육이었다. Heidegger의 존재론에 비추어 본 전문성은 이와는 달리 전문성 개발을 구속하는 자신의 실존적 위협요인을 스스로 극복해나가면서 전문성 육성과 개발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기술적 수단이나 도구에 대한 배려와 나의 전문성 육성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다른 현존재에 대한 심려가 만들어가는 관계론적 노력의 산물이다. 따라서 전문성은 한 개인의 외로운 독립적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실존적 주체는 물론 주체가 사용하는 도구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상호 작용의 산물이다. 전문성을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의 합작품으로 파악할 경우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적 노력과 접근논리도 달라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Heidegger 존재론에 비추어 본 전문성은 고정적이고 획일화된 개념으로서 역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체계 또는 구조로서의 지식을 수용한다는 것은 지식의 체계성, 구조성, 암묵성, 맥락성, 관계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것은 전문성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격적 총체로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전문성이 최고의 경지를 꿈꾸는 전문가의 실존적 삶이라면, 역량은 그러한 삶의 일정한 순간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의미한다. 기존의 전문성 연구는 전문가 개인의 역량분석에만 관심을 가져왔다.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 육성을 위해 전문성을 세부적 역량으로 규명하는 전문성 연구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다. 전문가의 전문성은 그의 인격적 총체로서 발현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분적으로 육성시키는 것 자체가 교육적 의미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제시한 전문성 개발 모형은 이론과 실제, 즉 불가분의 관계인 이론적 타당성(관조적 삶)과 기능적 탁월성(제작적 삶)을 능력으로서 바라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이끄는 윤리적 판단력을 동기와 이유로 구분시킴으로써 전문성

을 총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Heidegger 존재론에 비추어 본 전문성의 개념은 전문성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상호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다. 성인교육에서 “ $E=ms^2$ ”(한준상, 2009), 기업교육에서 “지식, 학습, 성과”(유영만 외, 2009), 학교교육에서 “지식획득과 심성함양”(신춘호, 2010) 등의 개념들과 연계성을 찾을 수 있다. 한준상(2009: 519)에 의하면, “배움(education)은 의미(meaning)에 쓰임새(significance)의 자승을 곱한 값”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교육을 설명한 것으로, Heidegger 존재론에 비추어 본 전문성과 연계하면, 의미는 염려로, 쓰임새1(도구)은 배려, 쓰임새2(동료 현존재)는 심려로 대별할 수 있다. 기업교육과 관련하여 지식, 학습, 성과는 다음과 같이 재개념화할 수 있다. 체계 또는 구조로서의 지식을 수용하면, 학습은 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며, 성과는 학습을 통해 어떤 의미 있는 산물이 산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학습을 통해 체득된 지식으로 인하여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산물이 창출되었다면, 여기에는 개인의 인격적 성장과 타인들에게 유의미한 가치가 제공되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학교교육에서 지식획득과 심성함양은 전문성 개발 모형이 능력(지식획득)과 동기/이유(심성함양)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Heidegger 존재론에 비추어 본 전문성은 성인교육, 기업교육, 학교교육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Heidegger 존재론에 비추어 전문성의 의미를 밝혀보려는 이 글은 그의 철학 일부에 대한 부분적 해석에 불과할 것이다. 본 연구는 Heidegger 존재론에 비추어 본 전문성을 이론적/개념적으로 정립하였으나, 전문성의 축적과 형성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다소 부족하다. 이러한 점에서 후속 연구는 Heidegger의 존재론에 비추어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Heidegger의 기술관과 연계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둘러싼 테크놀로지(또는 미디어)들의 상호작용을 교육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영준 (2009). 실천적 개념으로서의 역량. **교육철학** 45, 1-26.
- 권대봉 (2002). 일과 학습 통합시대의 평생교육 전문성 탐구. **평생교육연구**, 8(1), 1-20.
- 권두승, 조아미 (2016). **성인교육 및 상담**. 서울: 교육과학사.
- 기영화 (2002). 안드라고지의 Taxonomy와 포스트모던적 의미의 모색. **Andragogy Today**, 5(3), 57-76.
- 김광민 (2009). 역량기반(competency-based) 교육의 매력과 한계. **도덕교육연구**, 20(2), 171-197.
- 문용경 (2013). **네오프래그머티즘에 기반한 과정적 실재로서의 전문성 축적과 형성에 관한 개념적 모형 개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승억 (2007). **후설 & 하이데거**. 서울: 김영사.
- 박찬국 (2014).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독**. 서울: 그린비.
- 배을규 (2009). **인적자원개발론**. 서울: 학이시습.
- 배을규, 동미정, 이호진 (2011). 전문성 연구 문헌의 비판적 고찰: 성과, 한계, 그리고 HRD 함의. **HRD연구**, 13(1), 1-26.
- 서용석 (2013). 하이데거에서의 존재론과 교육론. **도덕교육연구**, 25(2), 57-86.
- 소경희 (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1-21.
- 소광희 (2003).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강의**. 서울: 문예출판사.
- 송미영, 유영만 (2010). 메타프락시스적 관점에 비추어 본 기업교육 복잡계 형성에 관한 연구. **Andragogy Today**, 13(1), 21-53.
- 신춘호 (2010). ‘역량’과 ‘심성’: 초등교육의 성격에 관한 성찰. **초등교육연구**, 23(4), 1-20.
- 엄태동 (2016). **하이데거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오현석 (2006). 전문성 개발과정 및 핵심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9(2), 193-216.
- 오현석, 김정아 (2007). 전문성 연구의 주요 쟁점과 전망. **기업교육연구**, 9(1), 143-168.
- 유영만 외 (2009). **4세대 HRD: 즐거운 학습, 건강한 지식, 보람찬 성과, 행복한 일터**. 서울: 학지사.
- 유영만, 문용경, 이두섭, 최윤미, 류재훈 (2013). 전문성 육성의 대안적 패러다임: 과정적 실재로서의 아레테-소유지향 관점에서 실존지향 관점으로. 2013 한국기업교육학회·한국액션러닝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포스코센터 서관. 2013년 5월 8일. 별쇄본.
- 윤정일, 김민성, 윤순경, 박민정 (2007). 인간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역량의 특성과 차원. **교육학연구**, 45(3), 233-260.
- 이기상 (2013). **존재와 시간: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 서울: 살림.

- 이홍우 (1998). *교육의 목적과 난점*. 서울: 교육과학사.
- 장상호 (1994). *인격적 지식의 확장*. 서울: 교육과학사.
- 장상호 (1997). *학문과 교육 (상): 학문이란 무엇인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형국 (2009). *하이데거의 삶의 해석학*. 서울: 채륜.
- 한준상 (1999). *호모 에루디티오*. 서울: 학지사.
- 한준상 (2009). *생의 가: 배움*. 서울: 학지사.
- 홍윤경 (2009). 교육목적으로서의 ‘아레테’(arete)의 개념 연구. *교육철학*, **44**, 173-190.
- Argyris, C., & Schön, D. A. (1996). *Organizational learning II: Theory, method, and practice*. Reading, MA: Addison Wesley.
- Aristotle. (2013). *니코마코스 윤리학*. (*Ethika Nikomacheia*. 천병희 역). 서울: 숲.
- Bae, E. K. (2002). A neglected dimension in training evaluation.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5*(2), 89-107.
- Bereiter, C., & Scardamalia, M. (1993). *Expert knowledge and how it comes about, surpassing ourselves: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implications of expertise*. La Salle, IL: Open Court.
- Bloom, B. S., & Sosniak, L. A. (1985). *Developing talent in young people*. New York, NY: Ballantine.
- Bourbonniere, M., Mezey, M., Mitty, E. L., Burger, S., Bonner, A., & Bowers, B. (2009). Expanding the knowledge base of resident and facility outcomes of care delivered by advanced practice nurses in long-term care. *Policy, Politics, & Nursing Practice*, *10*(1), 64-70.
- Chi, M. T. H., Glaser, R., & Farr, M. J. (1988). *The nature of expertise*. Hillsdale, NJ: Erlbaum.
- Chi, M. T. H., & Koeske, R. D. (1983). Network representation of child's dinosaur knowledge. *Development Psychology*, *19*, 29-39.
- Dreyfus, H. L., & Dreyfus, S. E. (1986). *Mind over machine: The power of human intuition and expertise in the era of the computer*. 16-51. New York, NY: Free Press.
- Engeström, Y. (2001). Expansive learning at work: Toward an activity theoretical reconceptualization.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14*(1), 133-146.
- Ericsson, K. A., & Lehmann, A. C. (1996). Expert and exceptional performance: Evidence on maximal adaptations on task constraint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7*, 273-305.
- Ericsson, K. A., & Lehmann, A. C. (1999). Expertise, *Encyclopedia of Creativity*, *1*, 695-707.
- Ericsson, K. A., & Smith, J. (1991). Prospects and limits of the empirical study of expertise An introduction. In Ericsson, K. A., & Smith, J.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 expertise* (pp.1-38).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ldman, D. H. (1955). Learning development in nonuniversal theory. *Human Development*, 38(6), 315-321.
- Gent, B. V. (1996). Andragogy. In A. C. Tuijnman.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adult education and training*(2nd ed.) (pp.114-117). New York, NY: Pergamon Press.
- Heidegger, M. (1998). **존재와 시간**. (*Sein und zeit*. 이기상 역). 서울: 까치글방. (원저 1979 출판)
- Heidegger, M. (2005). **이정표 2**. (*Wegmarken*. 이선일 역). 경기: 한길사. (원저 1976 출판)
- Heidegger, M. (2012). **동일성과 차이**. (*Identität und Differenz* 신상희 역). 서울: 민음사. (원저 1978 출판)
- Herling, R. W. (2000). Operational definitions of expertise and competence.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2(1), 8-21.
- Oakeshott, M. (1962). *Rationalism in Politics*. London: Methuen.
- Polanyi, M. (2001). **개인적 지식: 후기 비판적 철학을 향하여**. (*Personal Knowledge Towards a Post-Critical Philosophy*. 표재명, 김봉미 공역). 서울: 아카넷. (원저 1958 출판)
- Polanyi, M. (2015). **암묵적 영역**. (*The tacit dimension*. 김정래 역). 서울: 박영사. (원저 1967 출판)
- Ryle, G. (1994). **마음의 개념**. (*The Concept of Mind*. 이한우 역). 서울: 문예출판사. (원저 1949 출판)
- Spencer, L. M., & Spencer, S. M. (1998). **핵심역량모델의 개발과 활용**.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민명모, 박동건, 박종구, 정재창 공역). 서울: PSI컨설팅. (원저 1993 출판)
- Swanson, R. A., & Holton III, E. F. (2001). *The nature of human expertise: Foundation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San Francisco, CA: Berrett-Koehler Publishers.
- Tagg, J. (2007). Learning outcomes and the development of expertise. *On the Horizon*, 15(2), 89-98.